

## 경구 Colchicine 음독 후 발생한 사망 1례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내과학교실

이보라 · 오명기 · 김선영 · 권선옥 · 나현희 · 윤보영 · 고행일

### A Fatal Case after Ingestion of Colchicine

Lee Bora, Oh Myung Ki, Kim Sun Young, Kwon Sun Ok, Na Hyun Hee, Yoon Bo Young, Koh Haeng Il

Inje University Seoul Paik Hospital Internal Medicine

**배 경** : Colchicine은 통풍, 베타트병 등 항염증제재로 사용되는 약으로 치료용량 이상 복용시 용량에 따라 가벼운 위장관 증상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약이다. 본 저자들은 치사량보다 적은 용량의 Colchicine 음독 후 사망한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 59 세 여자가 남편과 다툰 후 colchicine 18 mg (0.26 mg/kg)을 음독한지 22시간 후 다량의 설사와 구토를 주소로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18년 전부터 전 베타트병으로 prednisolone과 colchicine을 복용하고 있었다. 내원 당시 혈압 160/90 mmHg, 맥박 80회/분, 호흡수 24회/분, 체온 36.2°C였고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급성 병색을 보였다. 신체이학적 검사에서 하복부에 압통이 있었고 반발통은 없었으며 복부 청진상 장음이 항진된 것 이외의 이상소견은 없었다. 혈액 검사에서 혈색소 16.8 g/dL, 헤마토크리트 50%, 백혈구 23,630/mm<sup>3</sup>, 혈소판 311,000/mm<sup>3</sup>, 생화학검사에서 Na-K-CI 145-4. 6-103 mEq/L, AST/ALT 224/51 IU/L, BUN/Cr 29/1.8 mg/dL, CPK 254 U/L, LDH 2313 IU/L 였다. 활성탄 50 mg 투여 후 충분한 수액공급과 통증조절 등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 이후 다량의 설사와 복통은 지속적이었으나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음독 62시간 후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기관삽관을 시행 후 관찰 중 음독 66시간째 맥박수가 느려지면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심폐소생술 시행 4분 후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으나 음독 68시간째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다.

**고 찰** : Colchicine 을 과량복용 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치명적인 증세 중 심근의 미토콘드리아에 작용하여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독성은 치사량에 가깝게 과량복용 할 때 나타날 후 있다고 되어 있으나 본 증례는 치사량보다 적은 용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적은 용량의 colchicine을 음독하였다 하더라도 집중치료와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